

SUMMER 2010

JUST + WOMEN

EMBRACING LIFE

SINGLE & SATISFIED

CELEBRATING
SINGLE WOMEN AND
FEARLESS LOVE

p. 6

Learning to lead p.4

Women of faith, vision,
and action p.11

Disciples women reflect
on a visit to Bosnia p.14

Lighting the way for women, and all Disciples

BY REBECCA BOWMAN WOODS



In 1977, when Laura Luz A. Bacerra joined the Department of Church Women, she became the first person of Asian ancestry hired at the general unit level of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Luz, a Filipino pastor and founding member of the American Asian Disciples (now called North American Pacific Asian Disciples, or NAPAD), has blazed a trail for many Disciples, including women. This should come as no surprise — for “luz,” translated from Spanish, means “light.”

Bacerra’s parents were church workers in the Philippines. Her father was a Baptist minister who later joined the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 (UCCIP), and Luz was determined to follow in his footsteps. After completing high school at Siliman University, a school founded by Presbyterian missionaries, she applied to enter the school’s college of theology.

In the early 1950s, women usually entered church and mission work as teachers. Few pursued ordained ministry. Bacerra and another woman were the only female ministry students, but she never felt excluded. “I enjoyed discussing theology with the men in our classes,” she recalls.

Prior to her enrollment, Bacerra had to assure the dean that her parents approved of her career choice. “My family was very supportive,” she says.

The dean, James McKinley, later became a mentor, and eventually a colleague in the UCCIP national office. Another mentor was Helen Spaulding, who headed the Department of Church Women in Homeland Ministries.

Bacerra went from congregational ministry to teaching Christian educators, to serving as the UCCIP’s national director of women’s work, to graduate studies at Chicago’s 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 Two years into her studies at McCormick, Spaulding asked her to serve in the Disciples’ national office. Bacerra said no; she wanted to return to the Philippines to work and pay back the cost of her education. Spaulding kept in touch during Bacerra’s four years as executive director of the YWCA of the Philippines, and eventually hired her as director of social involvement (later called director of church and community).

Spaulding was “a very good encourager,” Bacerra says, someone she could go with questions. Spaulding’s successor, Fran Craddock, became another role model. Craddock “was very good at delegating,” Bacerra explains. “She knew your abilities, and what your strongest leadership skills were.”

Bacerra’s relationship with Craddock made her comfortable enough to give voice to a question: Why were there no other people of color in church leadership positions? “I said, ‘I feel funny, I’m the only minority here,’” Bacerra recalls. Craddock encouraged her to contact the regions with Black or Hispanic constituencies, to begin making connections among minority groups.

Bacerra felt that women should be at the forefront of integrating the leadership of the denomination. She attended Hispanic and African American gatherings and saw

a need for an Asian group among Disciples. David Kagiwada, another key figure in organizing Asian Disciples, was serving a Disciples congregation in Indianapolis at the time. He, Bacerra, and others laid the groundwork for the group that eventually became NAPAD.

Bacerra left Homeland Ministries in 1984 to become the Southeast Asia executive for the Disciples’ Division of Overseas Ministries. She served with DOM until 1996, when a stroke forced her to take disability leave. Although she was eventually able to recover after extensive therapy, she formally retired at the end of 1999.

During the 2009 General Assembly, NAPAD honored Bacerra for her founding role. “She really is a pioneer in the Disciples church for Asian ministri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verseas,” says NAPAD’s executive pastor, Geunhee Yu.

Today, Bacerra lives with her sister in North Miami and is a member of Faith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 in Hollywood, Florida. She is active with Church Women United, and is encouraged by the growth of Hispanic and Haitian Disciples congregations in Florida.

Bacerra plans to attend Quadrennial Assembly this summer. Her advice to young women, many of whom have busy lives with careers and children, is this: “Make time for God.” As difficult as this may seem, Bacerra, who has had struggles of her own, takes inspiration from the Apostle Paul, who wrote to the Philippian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REBECCA BOWMAN WOODS IS A FREELANCE WRITER AND CO-PASTOR OF CARTHAGE CHRISTIAN CHURCH IN CINCINNATI, OHIO.

여성과 모든 제자회인들을 위

1997년 Laura Luz Bacerra 로라 러즈 A. 바셀라가 Department of Church Woman- 교회 여성국에 몸을 담기 시작했을 당시 로라는 동양인 배경의 사람으로 처음으로 크리스천 교회(제자회)에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핀계인 루즈는 American Asian Disciples - 미국의 동양인 제자회 (현 North American Pacific Asia Disciples - 북미 아시아 태평양계 제자회)의 초창 멤버로 여성들을 비롯한 많은 제자회인들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스페인어로 "luz"는 "빛"이라는 뜻이라는 말 그대로 루즈는 빛과 같았습니다.

바세라의 부모님은 필리핀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이셨다가 후에 United Church of Christ in the Philippines(UCCIP) -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셨고, 루즈 또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Silliman University에서 대학 과정을 마친 뒤, 그녀는 같은 학교의 신학 대학원 과정을 밟았습니다.

1950년대 초, 여성들은 교회나 선교의 일에 선생님으로 참여했었습니다. 극히 소수만이 안수받은 목사의 자격을 갖췄었습니다. 바세라와 다른 한 여성이 신학생중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소외 당하는 것과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업에서 남성들과 신학을 논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가 학교에 등록하기전에, 바세라는 학장에게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의 장래에 대한 결정을 동의 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어야만 했습니다. "제 가족들은 저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학장이었던 James McKinley는 후에 그녀의 스승이었고 그뒤에는 UCCIP의 국내 사무국에서 그녀의 동료가 되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또다른 스승이었던 Helen Spaulding는 제자회 Homeland Ministries - 국내 선교국안에 Department of Church Women - 여성 선교부 부장을 맡았던 분입니다.

바세라는 교회의 목회자에서 기독교 교육자로, UCCIP의 국내 사무국의 여성 선교 사무장을 거쳐 시카고에 McCormick 신학 대학의 대학원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대학원 2년차에, Spaulding은 그녀에게 제자회 본부에서 일하기를 제안했었습니다. 바세라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그녀의 학비를 지원해 준데에 대한 보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세라가 필리핀의 YWCA에 사무장을 맡았던 4년 동안 Spaulding은 그녀와 친분을 유지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회 관련 책임자 director of social involvement(후에 director of church and community - 교회와 지방 책임자 로 불리게 된)를 맡게되었습니다.

"Spaulding은 아주 훌륭한 격려자였습니다." 라고 바세라는 말하며 어느 질문으로도 그녀에게 다가갈수 있었다고 합니다. Spaulding의 후임자 였던 Fran Craddock 또 한 그녀에게 행동 모델이 되었습니다. Craddock은 사무 위임에 대한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원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지도자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세라와 Craddock과 친밀한 관계로인해 바세라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부담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교단 지도자 위치에 다른 유색인종들이 없습니까? "저 혼자만 소수 민족인이라는 점이 정말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Craddock은 그녀에게 흑인과 히스패닉 밀집 지역과 접촉을 해보고 소수 민족들 간에 결합해 볼것을 제안했습니다.

각 교단의 지도자들이 통합하는 노력에 여성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바세라는 생각했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들의 모임들에 참여해보고 제자회안에 아시아 그룹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또다른 동양인 제자회인들 중에 중요한 인물이었던 David Kagiwada는 그당시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제자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와, 바세라, 그리고 다른 이들이 후에 NAPAD가 된 그룹의 초반을 이루었습니다.

바세라는 1984년에 Disciples' Division of Overseas Ministries -제자회 해외 선교국의 동남아 지역 책임을 맡아 Homeland Ministries - 국내 선교국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일선에서 물러나야했을때 까지 DOM에서 1996년까지 일을 맡았습니다. 광범위한 치료를 통해 정상을 되찾을수 있었지만 1999년에 공식적으로 은퇴하였습니다.

2009년 총회에서 NAPAD는 바세라의 기여함에 명예를 표했습니다. "그녀는 제자회 안에서 아시아 선교를 비롯, 미국과 전세계를 위한 진정한 개척자였습니다" 라고 NAPAD 총 책임 목사 유 근희 목사는 말했습니다.

오늘날 바세라는 그녀의 자매와 함께 북 마이애미에 살고 있으며 Hollywood, Florida에 위치한 Faith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를 섬기고 있습니다. Church Women Unite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플로리다에 히스패닉과 해티인 제자회인들의 성장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바세라는 이번 여름 Quadrennial Assembly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과 아이들을 돌보며 바쁜 삶을 살아가는 젊은 여성들을 향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듯이 바세라 자신 또한 이 부분에서 분투했음을 인식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쓴 편지의 글로 영감을 나눕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것을 할 수 있느니라."